

“서울서만 아홉 차례 흥행...구름 관객 난리였지”

1919년 10월27일 '의리적 구토' 이후 시작된 한국영화 100년의 역사는 수많은 걸작을 관객에게 선사해왔다. 당대 대중의 감성을 어루만지며 진한 감동과 웃음과 눈물을 안겨준 대표적 작품이 여기 있다. 창간 11주년을 맞은 스포츠동아가 감독, 제작자, 평론가 등 100인의 영화 전문가들에게 한국영화 100년, 그 최고의 작품을 꼽아 달라고 요청해 얻은 답변이기도 하다. 그 걸작들을 시대순으로 소개한다.

일제 지배 조선 민족의 현실 은유 1926년 개봉 당시부터 매진 행렬 광복 이후 재상영... '아리랑' 열풍 원본 필름 남아 있지 않아 아쉬움

“사람이 구름때 같이 모여들고 기마대순사가 늘어서고, 우는 사람, 아리랑을 합창하는 사람,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단상사 앞은 난리였어요. 상영시간 한참을 앞두고 표는 매진이었고, 표를 못 산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중략) 영화 시작하고 끝날 때마다 밀려들고 밀려나가는 손님들이 법석을 피우는 거다.”

1926년 10월1일 그리고 그 직후 서울 종로의 단상사 안팎에서 벌어진 풍경이다. 1990년 5월18일자 한겨레신문은 열다섯 나이에 단상사에 내걸린 영화의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일흔일곱살의 배우 신일선, 훗날 나운규와 함께 일한 당시 양정고보생 전택이 써의 회고를 이렇게 전했다.

영화는 번사의 목소리에 실린 다음의 자막으로 시작했다.

“평화를 노래하던 백성들이 지나간 세월애 싸인 슬픔의 시를 읊으려 합니다. 평화가 깊이 잠들었던 고향한 촌락 넓은 들 가운데는 별안간 개와 고양이의 싸움이 시작되었다.”(위 신문)

한국영화의 상징과도 같은 감독 겸 배우, 제작자 나운규가 연출하고 주연한 '아리랑'이다. 영화는 '개와 고양이'에 빗댄 자막으로부터 관객의 시선을 모았다.

대체 무엇이 이처럼 뜨거운 관객의 호응을 얻게 했을까, 그것도 “1945년 광복



한국영화 100년,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된 영화 '아리랑'은 1926년 제작됐다. 1945년 광복 이후, 6.25전쟁 이후까지 상영되며 인기를 얻었다. 사진은 영화 속 한 장면. 스포츠동아DB



'아리랑'을 연출하고 주연한 나운규. 스포츠동아DB

이후에도 서울을 비롯한 지방 각처에서 재상영되었"고, "1950년 6.25 전쟁 직전까지 서울에서만 아홉 차례나 흥행에 부쳐졌고, 6.25사변 이후 1952년 9월 대구 만경관에서 1주일간 재상영(영남일보 광고)"될 정도로 대중은 '아리랑'에 열광했을까.(영화사학자 김중원,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전국')

정작 영화의 본편을 제대로 본 이가 이제 세상에 많지 않다는 점에서 호기심은 더욱 커진다. 이유는 단 하나. 현존하는 필름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 필름이 여전히 존재하는지조차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영화를 실제로 본 이들 역시 대부분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그런 점에서 '아리랑'은 충분히 "논쟁이 절실한 영화"로 꼽힌다. '아리랑'을 한국영화 100년 최고의 작품 가운데 한 편으로 뽑은 평론가인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이사장은 "이 영화가 왜 그토록 중요한 영화인지를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영화는 정신이상 증세에 시달리는 영진과 여동생 영희 그리고 영진의 친구 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영진이 정신이상 증세를 앓는 것은 제대로 설명되지 않지만 아마도 1919년 3·1 만세운동으로 투옥된 아픔이라고 추정된다. 영진의 아버지는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 지주의 빛을 진 소작농으

로 전락했다. 그런 '약점'으로 영진의 가족을 위협하는 지주의 마름 오기호는 현구와 사랑에 빠진 영희를 시시때때로 노리다 겁탈하려 한다. 그때 영진은 오기호를 향해 낫을 휘두르고 결국 '살인범'이 되어 순사들에게 끌려가며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야기에 앞서 영화는 '개와 고양이'라는, 결코 화해할 수 없는 두 대립적 존재로 당대의 현실을 은유한 듯 보인다. '개와 고양이'는 식민지 조선과 제국주의 일본을 빗댄 표현인 동시에, '마름'으로 대표되는 지배계급과 소작농의 피지배계급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평가받는다. 당대 관객 역시 이 같은 은유를 통해 이중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던 현실을 새삼 일깨우며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아리랑' 개봉 즈음 극장 풍경이 바로 이를 증명한다. 또 이는 여전히 찾지 못한 원본 필름의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한국영화 100년의 여전히 숙제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3

임시완 제대 "아직까지 실감 안 나"

연기자 임시완이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 임시완은 27일 경기도 양주 2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전역식을 갖고 현장에 모인 팬들과 인사했다. 2017년 7월11일 입대한 임시완은 20개월간의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제대했다. 임시완은 전역식에 모인 팬과 취재진에 "아직까지 어떤 실감을 못한다"며 "시원찮은 느낌이 크다"고 밝혔다. 임시완은 제대 전 OCN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 출연을 결정했다.

옥주현, 인플루엔자 확진...공연 불참

가수 옥주현이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옥주현 소속사 포트럭주식회사는 27일 "인플루엔자 확진판정으로 뮤지컬 '엘리자벳' 전주공연에 출연하지 못하게 됐다"며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옥주현은 30일과 31일 공연을 계획한 '엘리자벳' 전주공연에서 빠지고, 제작진은 대체 배우를 투입한다. 옥주현은 대외활동을 멈추고 당분간 치료에 전념할 예정이다.

'신흥무관학교' 車 사고로 공연 취소

뮤지컬 '신흥무관학교'가 출연진을 태운 버스의 교통사고로 이틀간 취소됐다. 제작사 쇼노트는 27일 "차량 접촉사고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이날 오후 3시, 8시 공연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출연자들의 충분한 휴식을 위한 결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공연은 28일 오후 8시부터 정상 진행될 예정이다. 26일 출연자들은 차량을 나눠 타고 공연장으로 이동 중에 접촉사고를 당했다. 지창욱, 강하늘, 조권 등 군 복무 중인 연예인이 출연한다.

내 소중한 남자를 위한 FOR MY DEAR MAN BLACK FACE 블랙페이스 고기능성 팬티

센스와 패션을 아는 남성들이 선택하는 고기능성 위생팬티

블랙페이스프리미엄형 고급팬티, 3D입체설계 팬티로 편안한 하루를 즐겨보세요.

남자팬티 절대 답답해선 안된다!

특허받은 3D 입체설계 구조

고급원단을 사용하여 신축성이 좋고 우수한 통기성과 빠른 말 흡수로 악취발생을 억제해 줍니다. 남성 중요부위를 분리하여 답답하거나 불편하지 않아 입는 동안 상쾌한 기분을 유지시켜 주는 기능성 팬티입니다.

초특가 할인행사 5장 39,800원

사이즈 : 95, 100, 105

※ 무조건 랜덤 5장 발송 ※

건강과, 위생을 생각한 블랙페이스 기능성 팬티, 통풍 신축성 땀흡수 기능고급원단으로 제작, 삶의 질을 향상시켜 드립니다.

카드결제가능 24시간 주문가능 1899-1898

계좌 : 농협) 355-0057-3479-43 한국뉴미디어 전국 우체국배송 3,000원 소비자 부담 / 카드가능

call mountain 새털같은 가벼움! 끈을 묶고 푸는 번거러움이 없는 간편함!

콜마운틴 완전방수기능성워킹화 파격할인!!

2019년 최신행 초경량 워킹화 동산화를 파격가로 만나보세요!

2019년 최신행 초경량 워킹화 소비자파격가! 198,000원 택배비무료 카드무이자

[24시간 주문가능 / 5개월까지 무이자할부]

국내생산 스프링 공학이 적용된 기능성 워킹화, 발에 가해지는 충격흡수 및 분산에 탁월, 발, 다리, 무릎, 허리 통증 스프링 워킹화가 해결해줍니다.

천연소기죽과 메쉬원단 사용으로 더욱 부드럽고 오래신을수 있습니다.

특허받은 MTC공법으로 신발 밑창에 스프링이 들어있어 일반 워킹화,운동화보다 편안합니다.

특허 제 1035 380호 최단급 걸림 방수제(화)생명사랑

①스프링워킹화 ②통산화워킹화 ③스프링 끈 188,000원

※남녀공용 사이즈 :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mm

카드결제가능 24시간 주문가능 1899-1898

입금계좌 : 농협) 355-0057-3479-43 한국뉴미디어 전국 무료배송 / 신용,체크카드 2개월~5개월 무이자 가능